

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배추김치 제조 가이드라인

2024. 1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 가이드라인은 배추김치 HACCP 인증업체에
올바른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한 자료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업체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올바른 배추김치 HACCP 운영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요약. 배추김치 올바른 HACCP 관리방안 빠르게 이해하기 1

1. 일반적인 배추김치 제조공정 3

2. 올바른 배추김치 중요관리점(CCP) 설정 5

 2-1. 비숙성 배추김치 CCP 5

 2-2. 숙성 배추김치 CCP 10

3. 올바른 배추김치 공정관리 방법 11

 3-1. 원·부재료 관리 11

 3-2. 공정별 관리 14

<요약>

배추김치 올바른 HACCP 관리방안 빠르게 이해하기

□ 완제품 숙성도에 따라 숙성 김치(pH 4.5 ↓)와 비숙성 김치(pH 4.5 ↑)로 구분

- (숙성) 안전성을 확보 위해 **완제품 숙성공정 운영**

→ 배추김치 완제품을 pH 4.5이하가 될 때까지 냉장 숙성

- (비숙성) 기존 관리 방법인 **원·부재료 세척공정 대신 소독·헹굼 공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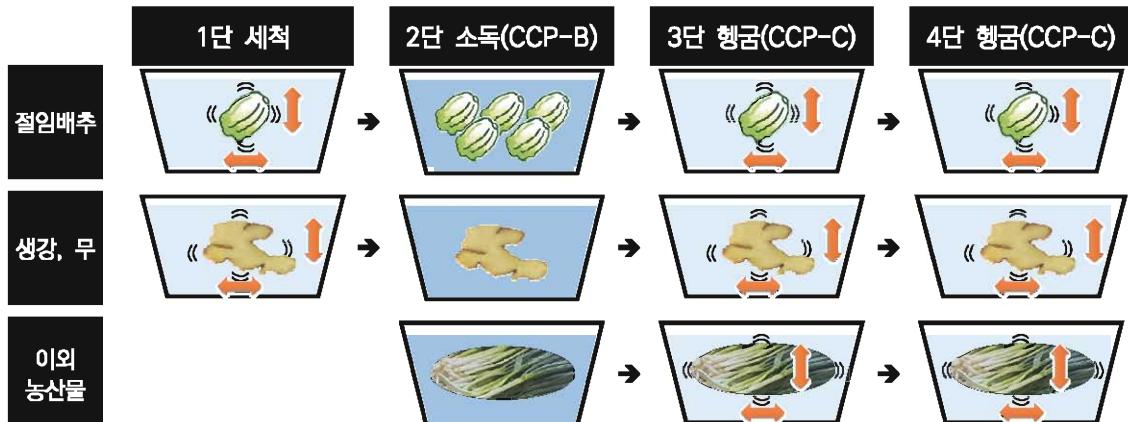
구분	기준(CCP)	개선(CCP)
절임배추	세척(CCP-B)	→ 소독·헹굼(CCP-BC)
기타 농산물	세척(CCP-B)	→ 소독·헹굼(CCP-BC) 또는 양념숙성(CCP-B)*
풀·육수(제조하여 사용 시)	가열(CCP-B)	→ 가열(CCP-B)

* 업체 특성에 따라 주원료(배추)는 소독·헹굼하고 모든 부재료를 양념으로 혼합하고 숙성(48시간 이상)하는 형태의 공정으로도 관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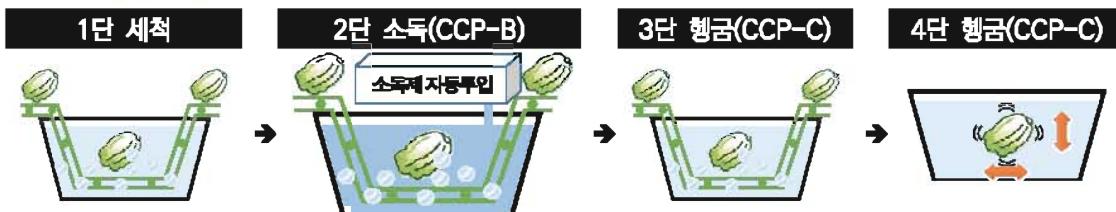
비숙성 배추김치 소독·헹굼(CCP-BC) 및 양념숙성(CCP-B) 관리 방법

▶ 소독·헹굼(CCP-BC) 방법

○ 침지형 소독·헹굼 방법(절임배추, 기타농산물)



○ 자동통과형 소독·헹굼 방법(절임배추)



▣ 소독 전 세척

- 절임배추, 생강, 무는 소독 전 세척(1회) 필수 운영(이외 농산물은 바로 소독 가능)

▣ 소독(CCP-B) (침지형 : 절임배추, 기타농산물)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100ppm 5분 침지(생강은 10분 침지)
또는 150ppm 3분~5분 침지(절임배추에 한함)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사용 시, 20~30ppm 5분 침지
- (주의) 소독수량은 원료 투입량의 10배 이상, 1회 소독 후 소독수 다시 제조

▣ 소독(CCP-B) (자동통과형 : 절임배추)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150~200ppm 90초~150초 소독
(단, 절임배추가 연속 투입되더라도 소독조 안의 소독수 농도 항상 150~200ppm 유지)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사용 시, 30~40ppm 90초~150 초 소독
(단, 절임배추가 연속 투입되더라도 소독조 안의 소독수 농도는 항상 30~40ppm 유지)
- (주의) 소독수는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사용

▣ 헹굼(CCP-C)

- 소독제가 절임배추 등 소독 대상에 잔류되지 않도록 철저히 헹굼

○ 소독·헹굼 농도 모니터링 방법



▶ 양념숙성(CCP-B) 방법



1 일반적인 배추김치 제조공정

▶ 일반적으로 절임배추 제조, 세척(배추 및 기타농산물), 양념제조 및 속봉기 단계로 제조



1. 원료 구입 및 보관



2. 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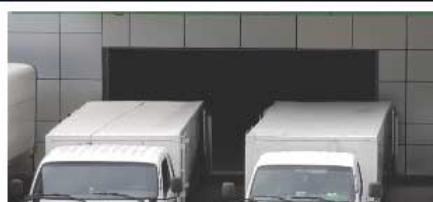
3. 절임

4. 세척(소독)



5. 탈수

6. 양념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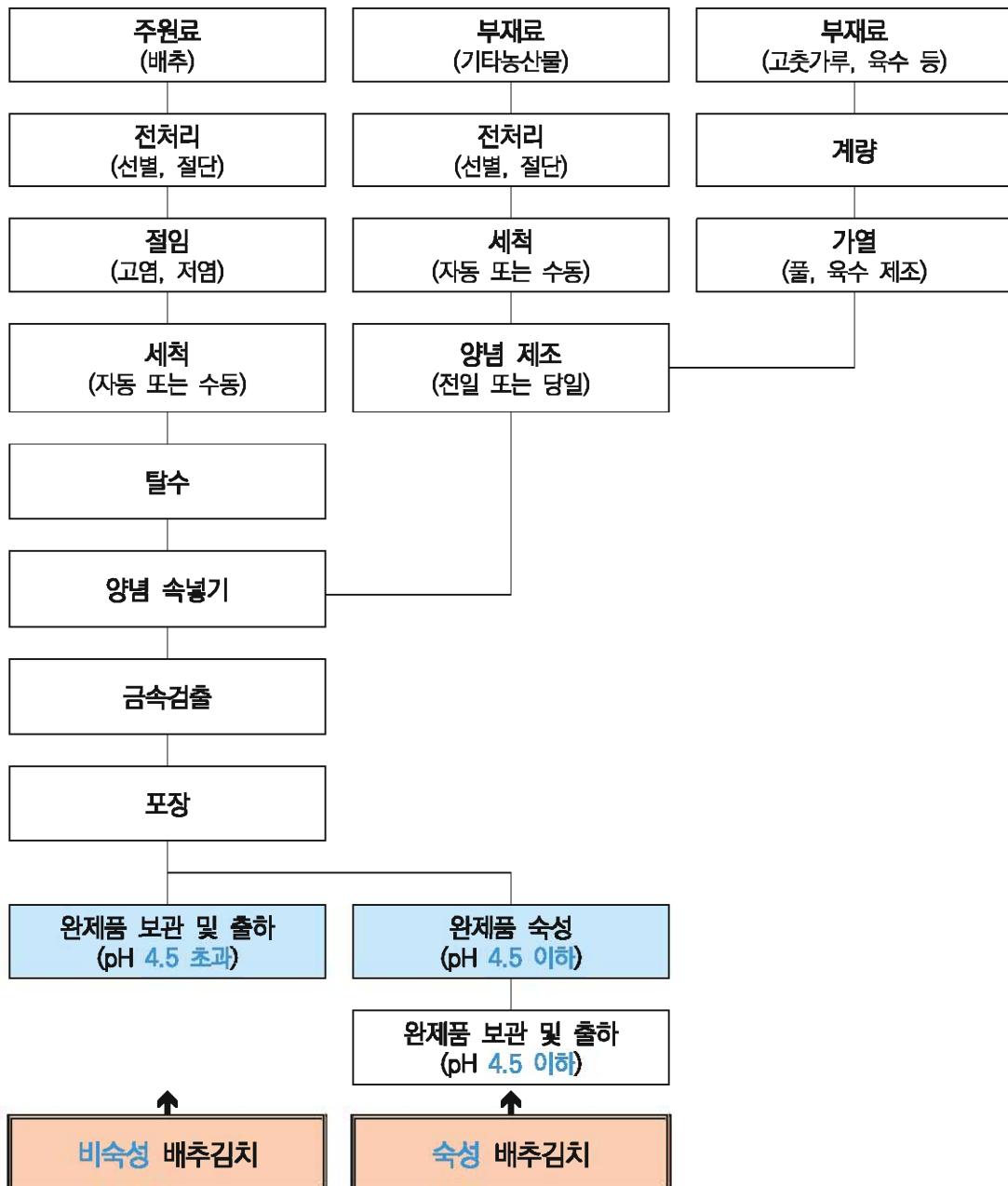
7. 양념속 넣기

8. 포장 및 검사

9. 보관(비숙성 또는 숙성)

10. 출하

▶ 배추김치 완제품 속성 여부에 따라 비속성(pH 4.5 초과) VS 속성(pH 4.5 이하) 구분
 ➔ ★ 비속성 배추김치는 원·부재료 특별 관리 필요



■ (참고) 속성 “pH 4.5 이하” 이해

- 배추김치 속성에 대한 법적 pH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속성 기준 척도와 배추김치의 안전관리 모두를 고려하여 부패세균의 생육이 억제되는 pH 4.5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

2 올바른 배추김치 중요관리점(CCP) 설정

2-1 비숙성 배추김치 CCP



여기서 잠깐 !

- 비숙성(pH 4.5 초과) 배추김치는 완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원·부재료의 생물학적(B) 위해요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므로
- 2가지 형태(① 소독·헹굼 또는 ② 소독·헹굼+양념 숙성)의 제조공정 중 하나의 제조공정을 선택하여 관리해야 함
 - ➔업체 특성에 따라 ①번 제조공정 또는 ②번 제조공정 중 하나의 제조공정을 선택하여 필수 운영 필요

[주요 제조공정 이해]

① 소독·헹굼 운영하는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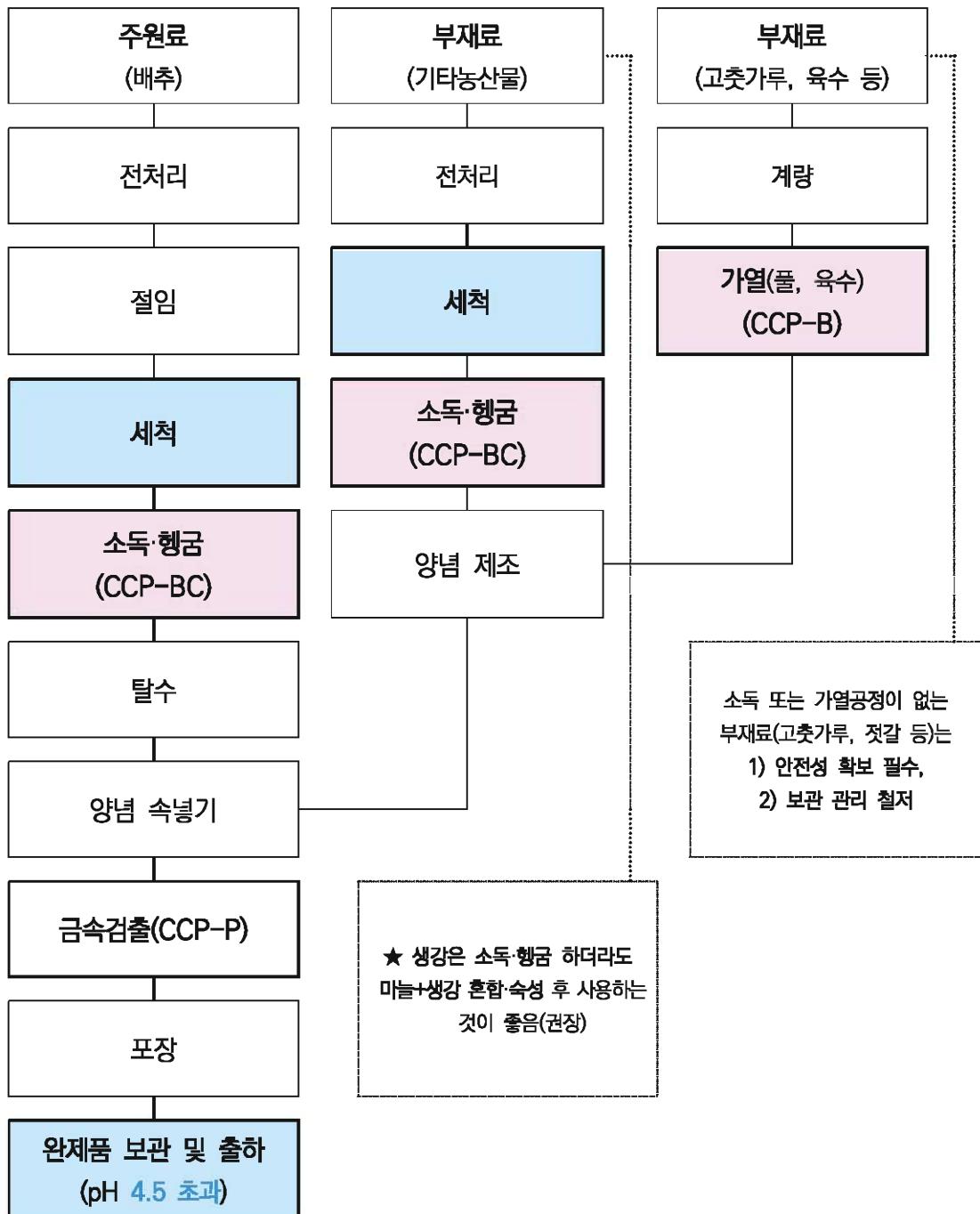
- ☒ 모든 원·부재료(배추 포함 모든 농산물)를 소독·헹굼하여 관리하는 제조공정
 - (CCP-BC) 주원료(배추), 부재료(기타농산물 전체) 모두 소독·헹굼
 - (CCP-B) 풀 및 육수 가열
 - (입고 및 보관 관리 철저) 소독 또는 가열하지 않는 부재료

② 소독·헹굼 + 양념 숙성 운영하는 제조공정

- ☒ 주원료(배추)는 소독·헹굼하고 나머지 부재료는 양념에 전부 투입 후 숙성하여 관리하는 제조공정
 - (CCP-BC) 주원료(배추)
 - (CCP-B) 양념 숙성
 - * 업체 특성에 따라 양념 숙성 후 투입해야 하는 부재료는 소독·헹굼(CCP-BC) 필요
 - (입고 및 보관 관리 철저) 소독 또는 가열하지 않는 부재료

① 원·부재료 소독·헹굼

▶ 제조공정



▶ 중요관리점(CCP) 및 주요 공정 설명

○ 주원료(절임배추) : 소독·헹굼(CCP-BC)

- 절임배추 1차 세척 후 소독·헹굼(CCP-BC)

*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므로 “C(화학적 위해요소)” 관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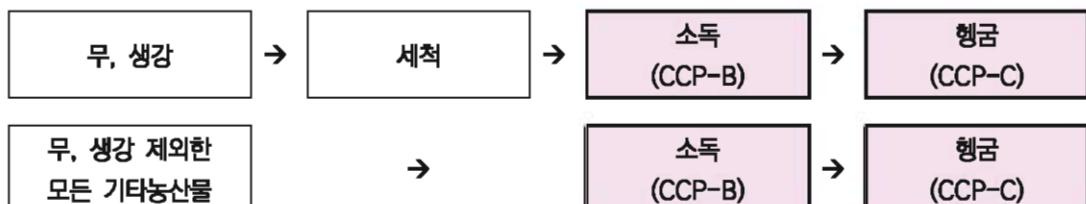
▣ 절임배추 소독·헹굼 전 세척이 필요한 이유

- 절임배추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소독할 경우

- 1)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농도 소독수를 사용해야 하며, 소독수와 접촉해야 하는 시간을 늘려주어야 함
- 2) 염소계 소독수 사용 시 세척한 절임배추를 소독 할 때 보다 소독취가 더 많이 남

➔ 절임배추는 1차 세척 후 소독하는 것이 좋음

○ 부재료(기타농산물 전체) : 소독·헹굼(CCP-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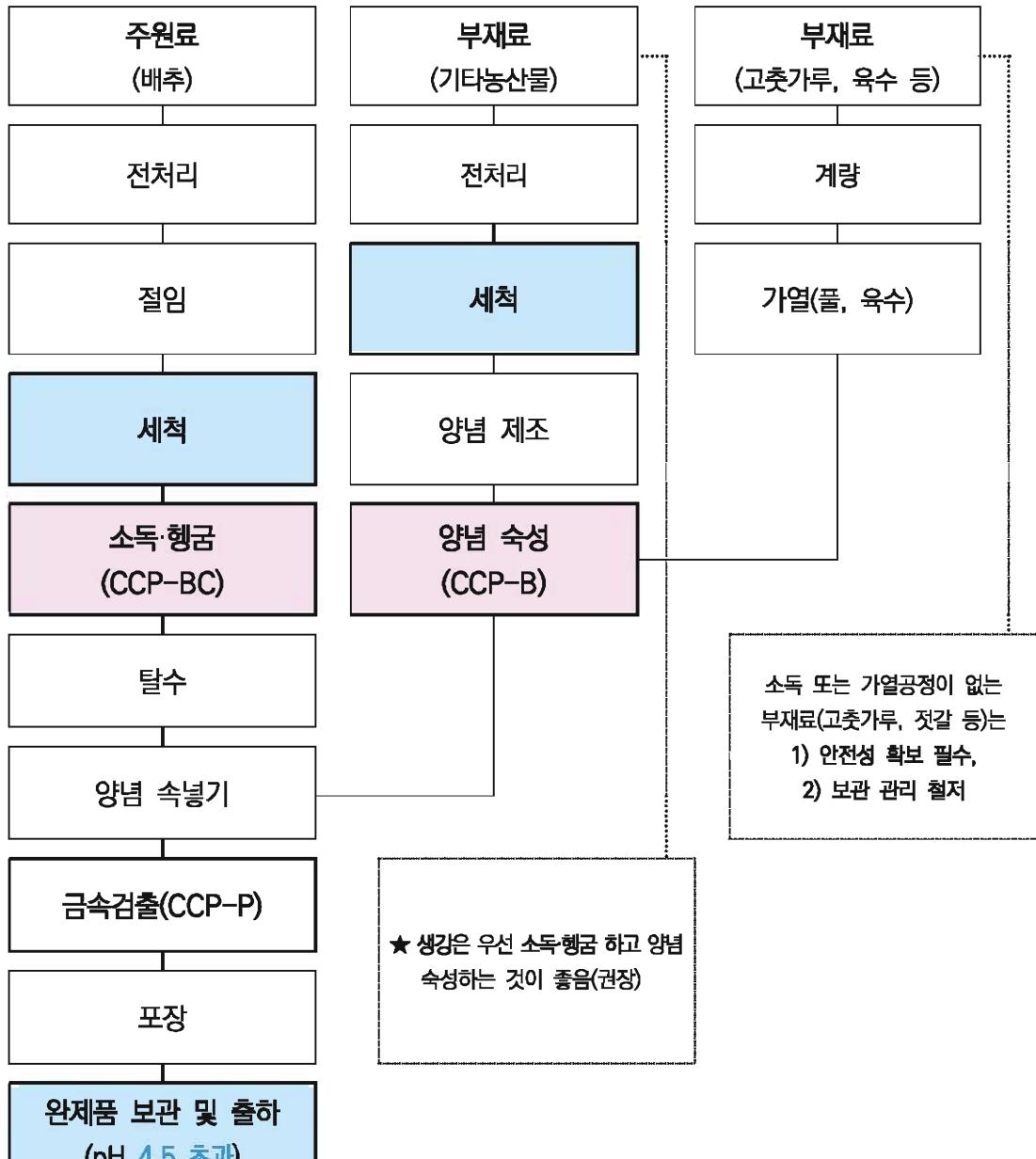
* 흙 등 오염 물질이 많은 기타농산물은 1차 세척 후 소독하는 것이 좋음

○ 풀 또는 육수 : 가열(CCP-B)

- 기타 : 소독 또는 가열공정이 없는 부재료(소독 또는 가열 어려운 경우)는 안전성 확보 필수 및 보관 관리 철저, 경우에 따라 CCP-B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음

② 원재료 소독·헹굼 + 부재료 양념 숙성

▶ 제조공정



▣ 업체 사정에 따라 양념 숙성 후 투입해야 하는 농산물 부재료가 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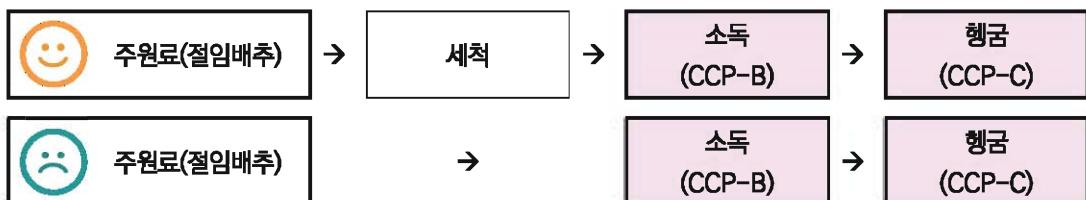
→ 소독·헹굼(CCP-BC) 필요

▶ 중요관리점(CCP) 및 주요 공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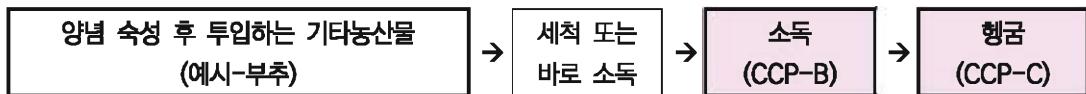
○ 주원료(절임배추) : 소독·헹굼(CCP-BC)

- 절임배추 1차 세척 후 소독·헹굼(CCP-BC)

*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므로 “C(화학적 위해요소)” 관리 포함



○ 양념 숙성 후 투입하는 부재료(기타농산물) : 소독·헹굼(CCP-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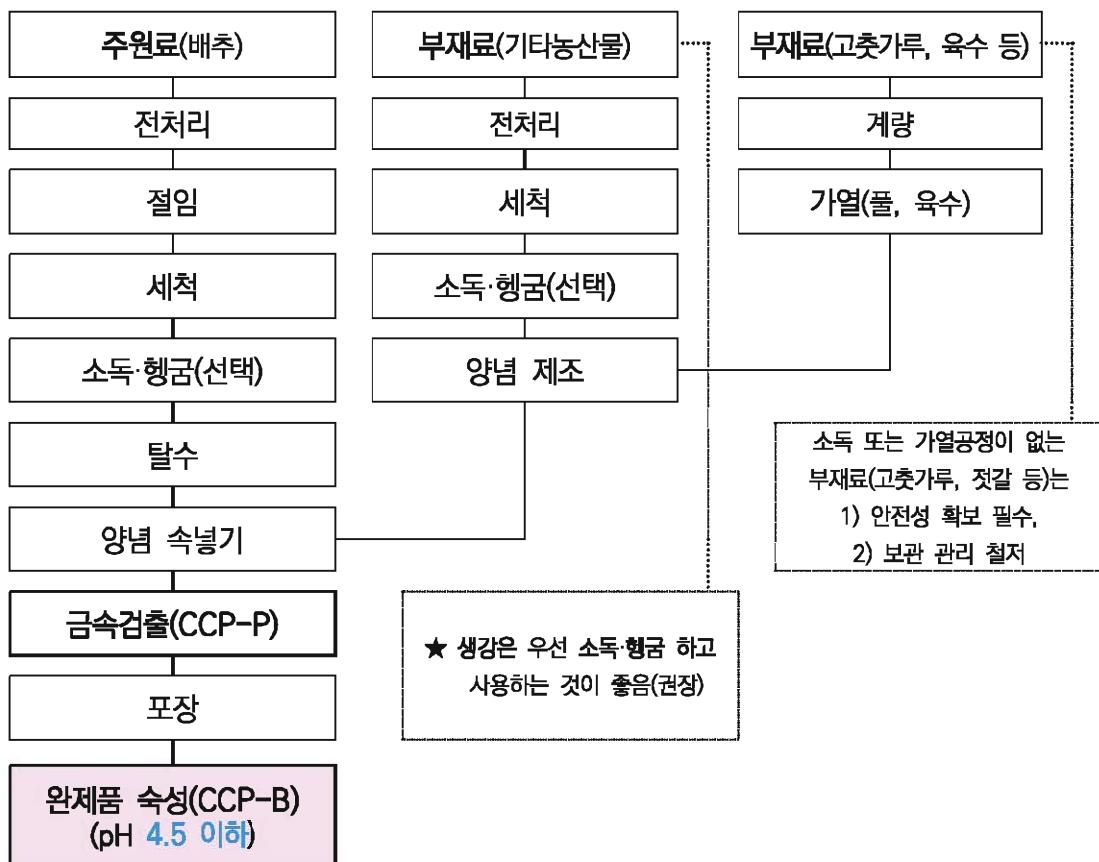
2-2 숙성 배추김치 CCP



여기서 잠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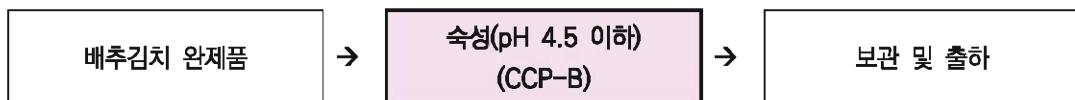
▣ **숙성(pH 4.5 이하) 배추김치는 완제품 숙성을 통해 생물학적(B) 위해요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완제품 숙성(냉장) 공정 관리 필수 운영 필요**

▶ 제조공정



▶ 중요관리점(CCP) 및 주요 공정 설명

○ 배추김치 완제품 : 숙성(CCP-B)



3 올바른 배추김치 공정관리 방법

- ▣ 본 가이드라인은 소독·헹굼공정 등 중요관리점 운영 방법을 중점 제시하므로, 선행요건관리 세부 관리방안은 '24.5월에 기 배포된 '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김치 제조 가이드라인'' 참조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 종합자료실 → HACCP자료

3-1 원·부재료 관리

산지 수확 시 관리(계약 재배)

- ▶ 물기가 적고 품온이 높지 않을 때 수확하고, 수확 시 환경에 의한 교차오염 주의
 - 비오는 날 수확하지 않으며, 저장용은 비온뒤 2~3일 경과 후 수확
 - 수확 시 흙, 뿌리, 오염된 겉잎(외엽)을 제거하고 흙에 닿지 않게 보관
(가급적 P-BOX에 담기)



흙에 방치 No !!



배추가 흙에 닿지 않도록 박스에 보관

- ▶ 수확 후 운반 중 농산물(배추 등)의 품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운반(냉장 운반 등)
 - 봄배추와 여름배추는 품온 관리에 더 주의

원·부재료 입고 관리

- ▶ 원·부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입고 시 검수하여 입고, 폐기, 반품 등 처리하며, 주기적으로 시험성적서 등을 관리
-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비가식 부분은 충분히 제거한 원료 사용
 - ➔ 입고 시 제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전처리 시 제거



배추 및 무 등 농산물 원료 입고 시 절단하여 원료의 상태를 확인

- 농산물 제외 부재료는 제조 방법 및 시험성적서(또는 직접 검사) 확인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 사용
 - ➔ 유통기한이 경과, 시험성적서 부적합 제품, 입고 검사 부적합 등 부적절한 원·부재료는 즉시 폐기 및 반품 처리
- ▶ 농산물 대량 입고 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품온 상승 방지)
- 대량 입고 시 냉장창고(5°C 이하 권장)에 우선 입고하여 검수



상온 방치 No !!



냉장 시설로 신속 이송·보관하여 품온을 낮춤

원·부재료 보관 관리

- ▶ 농산물은 10°C이하(5°C 이하 권장)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도록 보관
- 압력(무게)에 의한 짓무름 및 추가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쌓아 보관
- 일정량 분산 및 P-BOX에 담아 이격 관리하여 통풍이 잘되도록 보관
- 생강은 다른 농산물과 교차되지 않도록 구분 보관



많은 양 쌓기 No II



일정량을 분산하거나, P-BOX에 보관

- ▶ 배추 장기 보관 시에는 P-BOX에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검수 관리
- 장기 저장용 배추는 구매 시 철저한 검수를 통해 원료 안전성 관리
- 장기 보관 배추는 5°C 이하(권장)에서 보관 및 온도 관리 철저
- 정기적으로 검수하여 짓무름 등 발생한 품질 저하 배추 속아내기



품질 저하 배추 No II



배추 장기 보관 시 정기적으로 검수하여 품질 저하
배추 제거(겉잎 등) 관리

- ▶ 부재료(농산물 제외)도 10°C이하(5°C 이하 권장)에서 보관(밀봉 보관 포함)
- 고춧가루, 건고추, 액젓, 젓갈 등도 10°C이하(5°C 이하 권장)에서 보관 관리
- 분말 원료(특히 고춧가루)는 개봉한 경우 밀봉하여 보관 관리(습도 관리 필요)

3-2 공정별 관리

전처리(선별 및 절단 등) 공정

- ▶ 비가식부분을 1차 제거하고, 절단 후 발견되는 이물질 및 오염 부위 등 비가식부분을 2차 제거한다.



비가식부분 제거 없이
생산 투입 No !!



전처리 시 흙, 이물질, 오염부위(짓무름, 부패 등)
등 비가식부분 제거 후 생산 투입



- ▶ 배추는 비가식부분 제거 이외 겉잎 제거하고 사용

- 겉잎 제거는 자사 생산 방식 고려하여 이절 전 또는 이절 후 제거

- 저장 배추가 아닌 경우는 1~2겹 제거 후 사용

- * 산지 수확 시 겉잎 1겹 제거하고 입고 및 보관하는 것이 좋음

- 1개월 저장 배추는 최소 2~3겹, 2개월 이상 저장 배추는 최소 3~4겹 제거 후 사용

▣ 겉잎 제거가 필요한 이유 : 배추 겉잎 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 중 오염도가 높아져 소독 효과가 감소하므로 겉잎 제거 후 사용 필요 ➔ 절임, 소독 전 오염도 최소화 필요

(선택 사항) 절임 전 배추 세척

- ▶ 절임 전 전처리된 배추를 침지 세척 또는 분사 세척하여 흙 등 씻어 내기
[침지 세척] [분사 세척]



 절임 전 배추를 세척하고 절임공정에 사용

절임 공정

- ▶ 절임 공정 시 절임수(염수)는 재사용 하지 않고 매 사용 후 교체하여 사용



 염수 반복 사용 No !!

염수는 매 사용 후 교체

- ▶ 절임 시 아물 혼입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기구·용기 등은 사용하지 않음



 부적절한 기구·용기 No 11

 적절한 기구·용기 사용(누름판 등)

★ 절임 후 세척(또는 소독 전 세척) 공정



여기서 잠깐 !

▣ 비숙성 김치의 절임배추, 무, 생강은 소독 전 세척(1회) 필수 운영

* 이외에도 소독 전 흙 및 오염물질이 많은 농산물은 세척 후 소독하는 것이 좋음

▶ 절임배추 → 1회 세척하고(수동 또는 자동) 소독 공정에 투입

○ 절임배추(이절)는 잎 최대한 벌려 쪽당 10초 이상 세척

[수동 세척]



[자동 세척]



세척수는 절임배추의 3배 이상 사용, 세척수는 흐르는 물 상태라도 세척 사용 후 최소 2시간 이내 완전 교체 후 사용(2월~6월 또는 봄·여름·장기 보관 배추는 1시간 미내)

[절임 배추 세척 방법]



(수동) 흐르는 물에 이절 절임배추 밀동 부분을 잡고 위·아래, 좌·우 훤훤푸어서 잎 최대한 벌려 쪽당 10초 이상 세척 후 다음 단계(소독)로 투입

(자동) 1단 수조 잎 최대한 벌려 투입하고 쪽당 10초 이상 세척(머무름) 후 다음 단계(소독)로 투입
* 자동세척기는 끊기(또는 버블) 필수

▶ 무, 생강 → 달피 후 1회 세척(문질러 씻기)하고 소독 공정에 투입

* 표피에 흙 등 오염물질이 없도록 씻는 시간으로 세척 시간 설정

▶ 무, 생강 외 부재료 → 전처리 후 소독 공정에 투입, 다만 농산물 상태에 따라 1회 세척(문질러 씻기)하고 소독 공정에 투입해야 할 수 있음

★ 소독·헹굼(CCP-BC) 공정 ★



여기서 잠깐 !

- ☞ 기존 세척 방법에서 1차 세척 후, 2차 세척 대신 **소독(침지 또는 자동통과)**하고, 소독 후 소독수 잔류되지 않도록 **헹굼**하는 공정

소독제 이해

-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과 차아염소산수(미산성)으로 기준 제시하나 다른 소독수 선택하여 사용 가능(다만 소독효과 있어야 함)

소독방법(침지형, 자동통과형) 이해

- 침지형 소독 : 침지 시간 내내 정해진 소독 농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농도에 일정량을 투입하여 일정 접촉시간을 유지

※ 다만 소독수량은 투입하는 소독 대상의 10배 이상이 효과 좋음

* 예시) 절임배추 10kg 투입 시 소독수량은 100kg(100L) 이상

- 자동통과형 소독 :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상시 정해진 소독 농도가 유지

※ 소독수는 상시로 지속 투입되어야 함

* 예시) 한계기준이 150~200ppm인 경우 절임배추가 투입되더라도 소독조 안의 소독수 농도는 항상 150~200ppm이 되어야 하는 것(절임배추 투입 후 150ppm보다 낮아지면 한계기준 이탈)

헹굼공정 이해

- 소독제 사용 시 소독한 원료에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므로
- 소독 후 반드시 소독제를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하므로 헹굼공정 운영이 필수!
- 다만, 소독 및 헹굼 방법에 따라 헹굼횟수는 업체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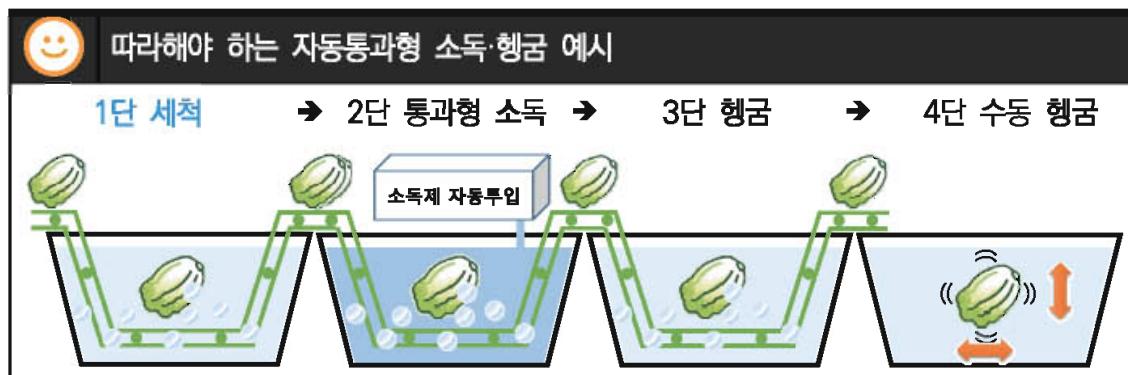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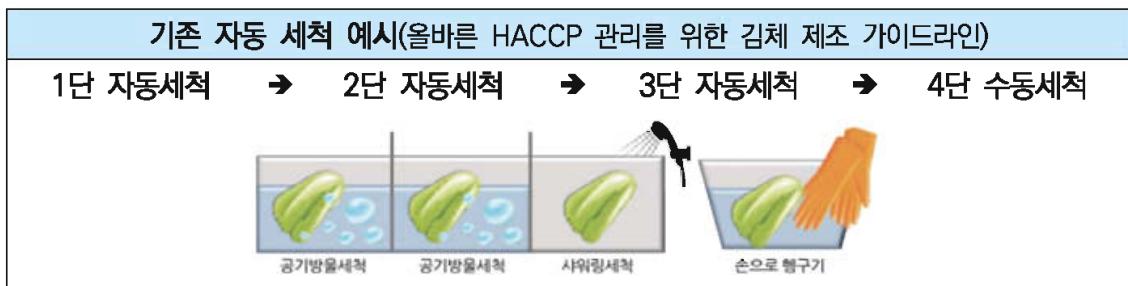
★ 소독·헹굼은 본 가이드라인 이외 아래 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 필독

1. 「올바른 소독·헹굼(염소계 소독) 공정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Q&A)(2023.12.)」
 2. 「소독·헹굼(CCP-BC)으로 변경 시 따라하기(2024.3.)」
 3. 올바른 소독·헹굼(CCP-BC) 공정 관리 교육 자료(2024.3.)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 종합자료실 → HACCP자료

[침지형 소독·헹굼 예시]



[자동통과형 소독·헹굼 예시]



침지형 소독·헹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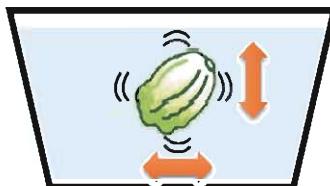
□ 절임배추 침지형 소독·헹굼(CCP-BC) 방법 *2번 보다 1번 방법 권장

①

세척 - 소독(CCP-B) - 헹굼(CCP-C)

< 적용 대상 : 절임배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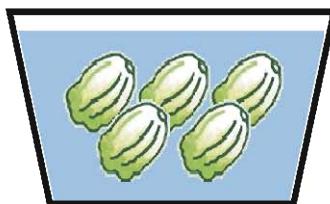
(1단) 소독 전 세척



- 절임배추 소독 전 1차 세척
- 세척 방법은 (16 page)
- ★ 절임 후 세척(또는 소독 전 세척) 방법에 따라 실시



(2단) 소독(CC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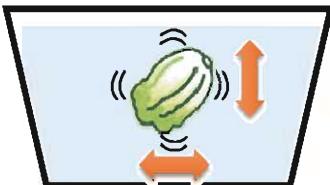


- 한계기준 농도로 제조한 소독수에 침지하여 소독
 - ※ 절임배추는 잎을 최대한 펼쳐 투입(누름판 필요할 수 있음)
- ▣ 소독 최소 한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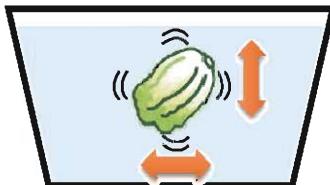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100ppm 5분 침지
또는 150ppm 3~5분 침지
 - 미산성차아염소산수 사용 시, 20~30ppm 5분 침지
 - * 소독수량은 투입량의 10배 이상
 - * 소독수는 1회 소독 후 다시 제조하여 사용



(3단) 1차 수동 헹굼(CCP-C)



(4단) 2차 수동 헹굼(CCP-C)



- 흐르는 물에 잎 사이를 펼쳐 위·아래, 좌·우 훤훔들어 1차 헹굼(3단), 2차 헹굼(4단)
- * 헹굼 시간 및 횟수는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설정 필요

★ 주의 : 헹굼 후 절임배추에 소독수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며 헹굼 시 교차오염 관리 철저

소독(CCP-B) – 행굼(CCP-C)

②

〈 적용 대상 : 절임배추 〉

절임배추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소독하는 경우(②),

①번 방법에 비해

소독수 농도 올려야 함(↑), 침지 시간 늘려야 함(↑), 작업장에 소독취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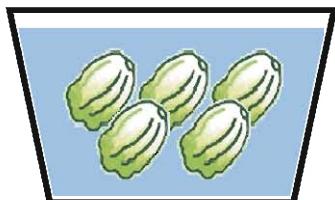
절임배추(세척 없이 투입)



(1단) 소독(CCP-B)

■ 한계기준 농도로 제조한 소독수에 침지하여 소독

※ 절임배추는 잎을 최대한 펼쳐 투입(누름판 필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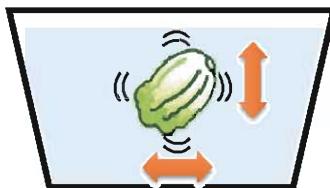


▣ 소독 최소 한계기준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200ppm 10분 침지
- 미산성차아염소산수 사용 시, 30~40ppm 10분 침지
- * 소독수량은 투입량의 10배 이상
- * 소독수는 1회 소독 후 다시 제조하여 사용



(2단) 1차 수동 행굼(CCP-C)



(3단) 2차 수동 행굼(CCP-C)



■ 흐르는 물에 잎 사이를 펼쳐 위·아래, 좌·우 훤틀어 1차 행굼(2단), 2차 행굼(3단)

* 행굼 시간 및 횟수는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설정 필요

★ 주의 : 행굼 후 절임배추에 소독수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며 행굼 시 교차오염 관리 철저

□ 부재료(절임배추 제외 농산물) 침지형 소독·헹굼(CCP-BC)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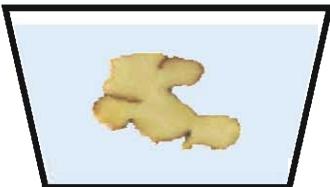


세척 - 소독(CCP-B) - 헹굼(CCP-C)

〈 적용 대상 : 생강, 무 〉



(1단) 소독 전 세척



- 생강, 무 전처리(탈피) 후 소독 전 1차 세척
- 세척 방법은 (16 page)
- ★ 절임 후 세척(또는 소독 전 세척) 방법에 따라 실시



(2단) 소독(CCP-B)



- 한계기준 농도로 제조한 소독수에 침지하여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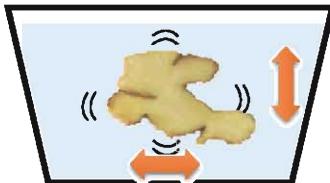
※ 농산물 종류에 따라 누름판 필요할 수 있음

▣ 소독 최소 한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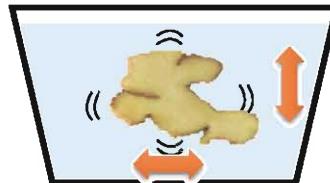
- **무** : 차아염소산나트륨 100ppm 5분 침지 또는 미산성차아염소산수 20~30ppm 5분 침지
- **생강** : 차아염소산나트륨 100ppm 10분 침지
미산성차아염소산수 20~30ppm 10분 침지
- * 소독수량은 투입량의 10배 이상
- * 소독수는 1회 소독 후 다시 제조하여 사용



(3단) 1차 수동 헹굼(CCP-C)



(4단) 2차 수동 헹굼(CCP-C)



- 흐르는 물에 위·아래, 좌·우 훤푸어 1차 헹굼(3단), 2차 헹굼(4단)

* 헹굼 시간 및 횟수는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설정 필요

★ 주의 : 헹굼 후 농산물에 소독수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며 헹굼 시 교차오염 관리 철저

소독(CCP-B) – 행굼(CCP-C)

〈 적용 대상 : 모든 농산물(무, 생강 제외) 〉



전처리



- 생강, 무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전처리 후 바로 소독 투입 가능(다만 전처리 후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



(1단) 소독(CCP-B)

- 한계기준 농도로 제조한 소독수에 침지하여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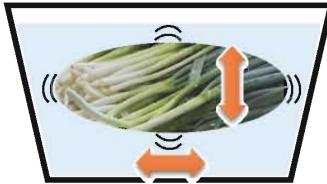
※ 농산물 종류에 따라 누름판 필요할 수 있음

▣ 최소 소독 한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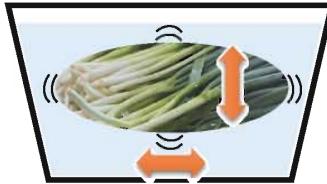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100ppm 5분 침지**
 - 미산성차아염소산수 사용 시, **20~30ppm 5분 침지**
- * 소독수량은 투입량의 10배 이상



(2단) 1차 수동 행굼(CCP-C)



(3단) 2차 수동 행굼(CCP-C)



- 흐르는 물에 위·아래, 좌·우 흔들어 1차 행굼(2단), 2차 행굼(3단)

* 행굼 시간 및 횟수는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설정 필요

★ 주의 : 행굼 후 농산물에 소독수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며 행굼 시 교차오염 관리 철저

자동통과형 소독·헹굼 방법

□ 절임배추 자동통과형 소독·헹굼(CCP-BC)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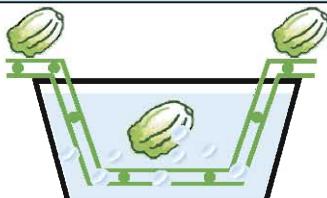


세척 - 소독(CCP-B) - 헹굼(CCP-C)

< 적용 대상 : 절임배추 >



(1단) 소독 전 세척



- 절임배추 소독 전 1차 자동세척
- 세척 방법은 (16 page)
- ★ 절임 후 세척(또는 소독 전 세척) 방법에 따라 실시



(2단) 소독(CCP-B)

- 소독수가 한계기준 농도로 항상 유지되도록 지속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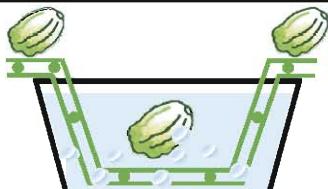


▣ 소독 최소 한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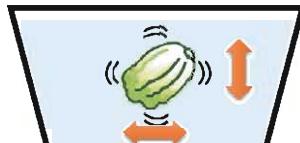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시, 150~200ppm 90~150초
- 미산성차아염소산수 사용 시, 30~40ppm, 90~150초
- * 절임배추가 투입되더라도 소독조 안의 소독수 농도는 항상 한계기준 농도를 유지해야 함
- * 소독수는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사용



(3단) 1차 자동 헹굼(CCP-C)



(4단) 2차 수동 헹굼(CCP-C)



- 1차 자동 헹굼하고, 2차 수동 헹굼(흐르는 물에 잎 사이를 펼쳐 위·아래, 좌·우 흔들기)
- * 헹굼 시간 및 횟수는 소독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설정 필요

★ 주의 : 헹굼 후 절임배추에 소독수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며 헹굼 시 교차오염 관리 철저

소독·헹굼 모니터링(농도 확인)



여기서 잠깐 !

- 소독·헹굼은 설정된 소독과 헹굼의 한계기준 모두를 모니터링해야 함
- 특히 소독수 농도와 헹굼 후 소독제 잔류여부 모니터링 관리가 매우 중요함
 - ➔ (소독-침지) 원료 투입 전 소독수 농도 확인
 - ➔ (소독-자동통과) 원료 투입 전 소독수 농도, 원료 연속 투입 중 소독수 농도 확인
 - ➔ (헹굼) 헹굼 후 원료에 소독제 잔류 여부 확인

▣ 소독·헹굼 한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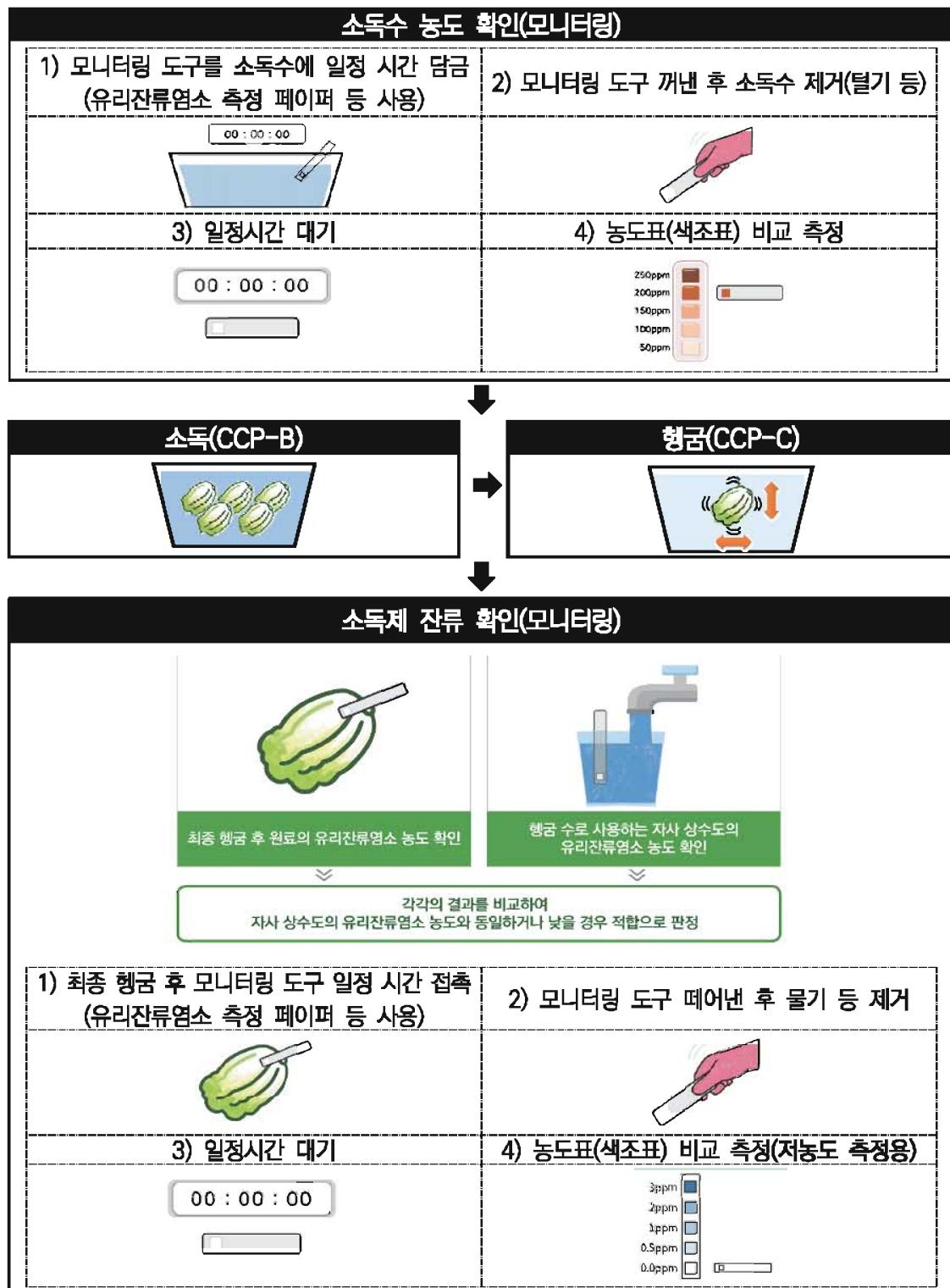
- 한계기준 설정 중요 사항

한계기준 대상(모니터링 대상)		한계기준 설정 중요사항
소독	소독제 종류	▪ 소독 효과는 소독 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독수 농도	▪ 소독제 종류, 소독수 대비 원료 투입량, 소독 시간 등이
	원료 투입량 및 소독수량	▪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독 시간(방법 포함)	▪ 소독 효과와 연계된 모든 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소독수 교체 주기	
헹굼	헹굼수량	▪ 소독 대상에 소독제가 잔류하지 않아야 하므로
	헹굼 시간(방법 포함)	▪ 소독제를 제거하도록 관리하는
	헹굼수 교체 주기	
	소독제 잔류 기준	▪ 모든 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 (예시) 한계기준 설정(침지형)

구분		한계기준 예시
소독	소독제 종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수 농도	유리잔류염소 150ppm 이상
	원료 투입량 및 소독수량	10.0kg이하 / 20L±0.1L
	소독 시간(방법)	4분±30초, 침지
	소독수 교체 주기	1회 소독 후 교체
헹굼	헹굼수량	1단 : 20L±0.1L, 2단 : 20L±0.1L
	헹굼 시간(방법)	1단 : 2~3분(침지), 2단 : 1~2분(원료별 좌우, 상하 흔들어 헹굼)
	헹굼수 교체 주기	1단 : 30.0kg 헹굼 후 교체, 2단 : 10.0kg 헹굼 후 교체
	소독제 잔류 기준	자사 상수도의 유리잔류염소 농도와 동일 또는 이하

□ (예시) 소독수 농도 모니터링 방법(염소계 소독수 사용 시)



탈수 공정

- ▶ 탈수 시 바닥 접촉, 물 뒤김 등 교차오염 관리
 - 탈수대 또는 탈수 전용 용기에 잘 쌓아 바닥, 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격 관리
 - 바닥 물이 뛰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일정 높이에서 탈수
- ▶ 탈수는 4시간 미내, 냉장 온도에서 탈수(권장)
 - 냉장실이 협소하여 작업장에서 해야하는 경우 18°C 이하 청결한 곳에서 탈수



바닥에 달기 및 바닥 물 뛰어
제품에 달기 No !!



바닥, 벽 이격관리하여 교차오염 예방

★ 가열(CCP-B) 공정 ★

- ▶ 풀과 육수 제조시 가열 공정을 중요관리점(CCP-B)으로 관리
 - ➔ 한계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
- ▶ 풀과 육수는 가열 후 신속 냉각하여 밀폐된 용기에 담아(제조일시 등 표시 필요) 냉장으로 보관 관리하며 빠른 시일내에 소진



덮개 없이 상온 방치 No !!



가열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 양념숙성(CCP-B) 공정 ★



여기서 잠깐 !

⇨ 주원료(배추)는 소독하고 나머지 모든 부재료는 혼합하여 양념 제조 후 숙성하는 형태의 제조공정 운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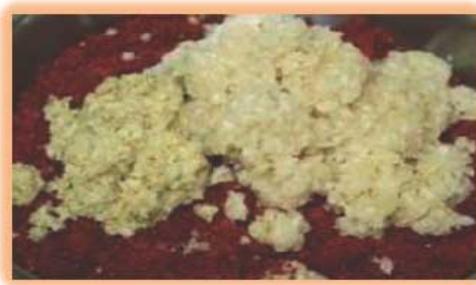
→ 양념숙성을 중요관리점(CCP-B)으로 관리

□ 양념(전체) 숙성(CCP-B)

- ▶ 양념 전체 숙성 공정을 중요관리점(CCP-B)으로 관리
 - 한계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



* 양념 숙성의 경우 기존 자사 양념의 배합비율 및 배합량 등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음



마늘 함량이 많고 숙성시간이 길수록 좋음

□ 양념(마늘+생강) 숙성(CCP-B)

- ▶ 양념(마늘+생강) 숙성 공정을 중요관리점(CCP-B)으로 관리
 - ➔ 한계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
- ▶ 생강은 소독·헹굼 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영하더라도 마늘과 혼합하여 냉장숙성 후 사용하는 것이 좋음



양념(마늘+생강) 숙성 방법

〈 적용 대상 : 양념 한동 또는 한 배치(batch) 〉



마늘과 생강을 따로 숙성 후 혼합

마늘 전체



생강 전체



나머지 양념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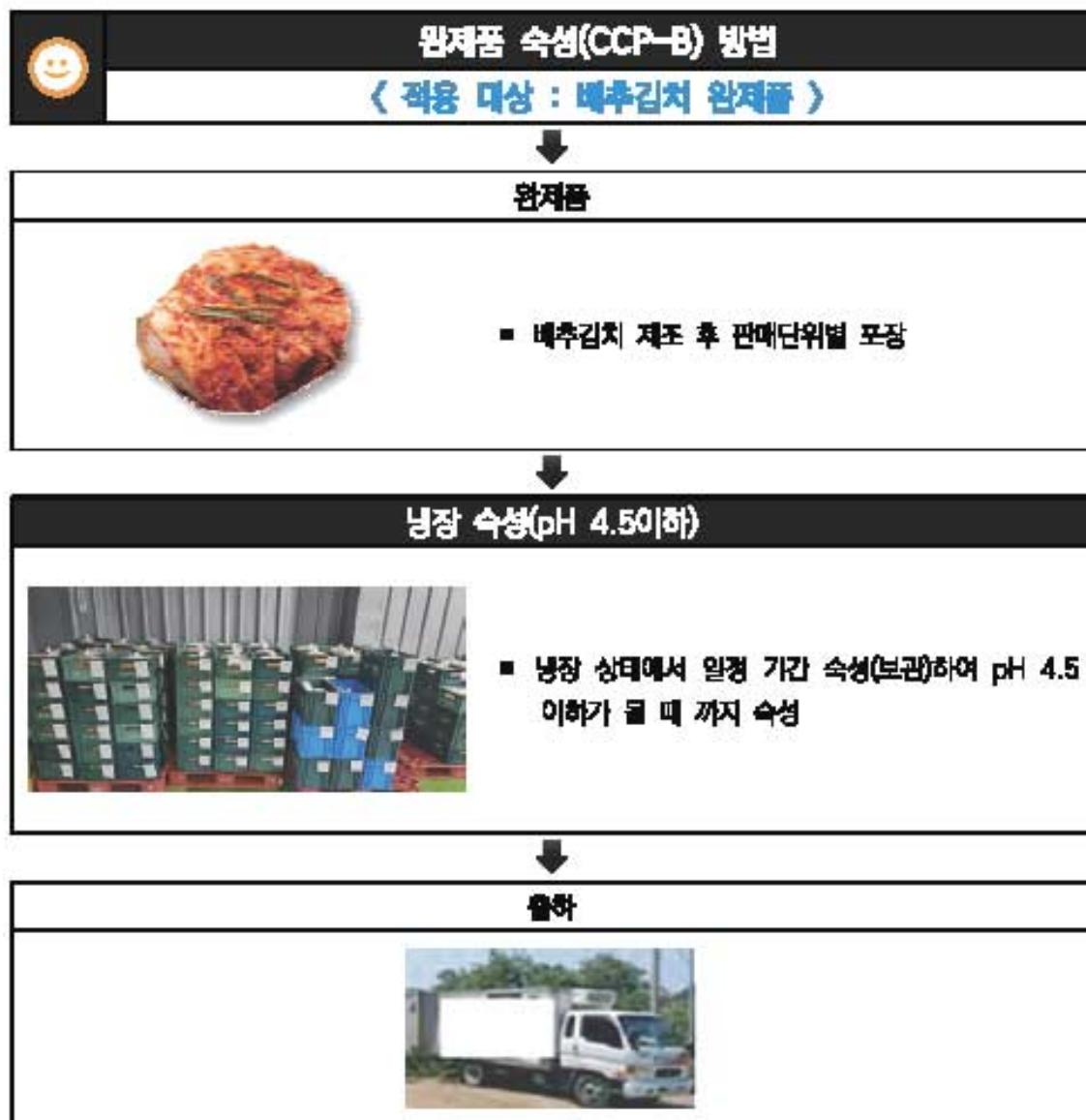
혼합 후 24시간 냉장 숙성

혼합

속넣기

★ 원제품 숙성(CCP-B) 공정 ★

▶ 원제품 숙성 공정을 중요관리점(CCP-B)으로 관리 → 한계기준을 준수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



(알 림)

본 가이드라인은 HACCP 인증업체의 이해를 돋고자 만든 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배추김치 제조 관리 가이드라인

발 행 일 2024년 11월

발 행 인 오유경

편 집 위 원 장 김성곤

감 수 마정애, 한상배

편 집 위 원 최충렬, 이지현, 김민정, 권내령, 김수성,
홍진환, 구경민, 김동주, 이재형, 최규덕, 정혜림, 조민규, 김경태,
최희관, 김승희, 박다은, 신갑식, 구이연, 이한솔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http://www.mfds.go.kr>

올바른 HACCP 관리를 위한
배추김치 제조 가이드라인



공직자 부패·공익 신고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부패·공익신고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통합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코너